



# 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사례집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성과사례집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KSP 성과사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서문 | Preface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사업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 질적 개선을 위해 성과관리(Result-based Management: RBM)에 기반한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및 양자원조기관들은 자체 성과중심관리 정책 수립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조 지원의 정당성 확보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COVID-19가 야기한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원조예산 증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기구 및 공여국들은 성과관리를 통한 전략적 ODA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OECD DAC 가입 이후 1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ODA 사업을 돌아보고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성과 및 평가 중심의 ODA 추진체계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으로서 2004년에 시작되어 2021년 현재까지 90개국 대상 1,444여 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였다. KSP는 기존 실물지원과 물자지원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를 넘어 수원국의 거버넌스 강화, 제도 개선, 역량 개발에 이바지함으로써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성과발현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KSP는 무형의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성과(outcome)를 측정하기 어렵고, 사업종료 이후 성과발현이 되기까지 통상 2~3년의 시차가 발생하며, KSP를 통한 지식공유의 결과가 실제로 협력국의 성과발현에 기여하였는지 명확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히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및 KSP 3개 총괄기관(KDI, KEXIM, KOTRA)은 2013년 성과추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과사례를 발굴하고 KSP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성과추진요인과 제약(저해)요인을 분석한다. 발굴한 성과사례는 협력국 정책반영사업, 국내외 후속협력 연계사업, 민간경제협력촉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성과추진요인과 성과제약요인을 파악하여 차기 사업의 기획에 환류한다.

본 KSP 성과사례집은 그간 성과추적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KSP 성과 중 성과유형별로 협력국 내 파급력,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이집트, 케냐, 페루

총 7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성과사례를 사업 추진 당시 협력국의 상황(context) - KSP를 통한 투입 및 활동(intervention) - KSP의 성과 및 성과발현요인 - 사업의 영향과 사업이 주는 시사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밖에도 최근 3년 내 발현된 최신 KSP 성과와 함께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 등 제3자 KSP 평가도 수록하였다.

그간 KSP는 협력국의 정책 개선, 협력국 정부의 이행역량 강화, 후속사업 및 투자 연계,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왔음에도 그 성과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는 미미하였다. 이번 성과사례집 발간을 통해 KSP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민의 KSP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 성과사례집이 분석한 성과연계요인과 제약요인이 향후 유사사업 기획 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KSP와 타 사업간의 연계방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주요 약어 목록 (List of Acronyms)

- 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KDI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
- KEXIM :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KOTRA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SP 성과분류체계 소개

KSP 사업의 성과는 KSP 사업 운영지침<sup>1)</sup>에 의거하여 크게 (1) 개인과 조직 행태의 새로운 의사결정 및 정책 · 제도변화, (2)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개발협력, (3) 민간 부문과의 경제협력 촉진 등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KSP 성과분류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KSP 성과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법률, 규정 수립	
	정책문서, 예산 수립	
	기관, 조직 설립(개편)	
	기타(정책관계자 홍보, 정책 네트워킹 강화, 역량강화 등)	
개발협력 촉진	국내 후속협력	상호협약(MOU, LOI 등)
		전문가 파견
		후속 교육/연수
		후속 부처(기관) 사업 협의
		기술지원(KSP, KOICA, WFK 등)
	국제기구 등 후속협력연계	금융지원(EDCF, 증여, 인프라 PPP 등)
		기타 ODA 사업(정부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사업)
		기술지원(국제기구)
		금융지원(차관, 증여, 인프라 PPP 등)
		민간기업 연계(영업기회 탐색, 타당성 조사 등)
민간 경제협력 촉진	CSR	
	현지 기업지원	
	직접투자	

KSP는 위의 성과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원국의 정책변화 및 국내·외 후속협력 여부 등 기획단계에서 설정했던 잠정 성과 발현 여부를 협력대상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와의 면담, 서면 인터뷰,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후속사업 연계지원을 통해 KSP 사업의 성과발현에 기여하고 있다.

1) KSP 사업 운영지침(19.10.2. 개정본) 제2장 3절 31조 성과관리 및 확산 중 사업성과창출에 따른 성과분류  
 1. 정책자문 결과가 협력대상국 법령 또는 정책에 반영  
 2.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공공기관 설립, 조직개편 등을 실시  
 3.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등 후속 사업을 추진  
 4.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협력대상국에 진출하거나 각종 후속사업을 수주  
 5. 그 외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교류협력 증진

## CONTENTS

### KSP 성과체계 소개 \_ 6p

#### 유형별 대표 성과사례

#####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콜롬비아 \_10p  
콜롬비아 국가시험소정책 마련
- 카자흐스탄 \_16p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택보증제도 도입

##### [인프라·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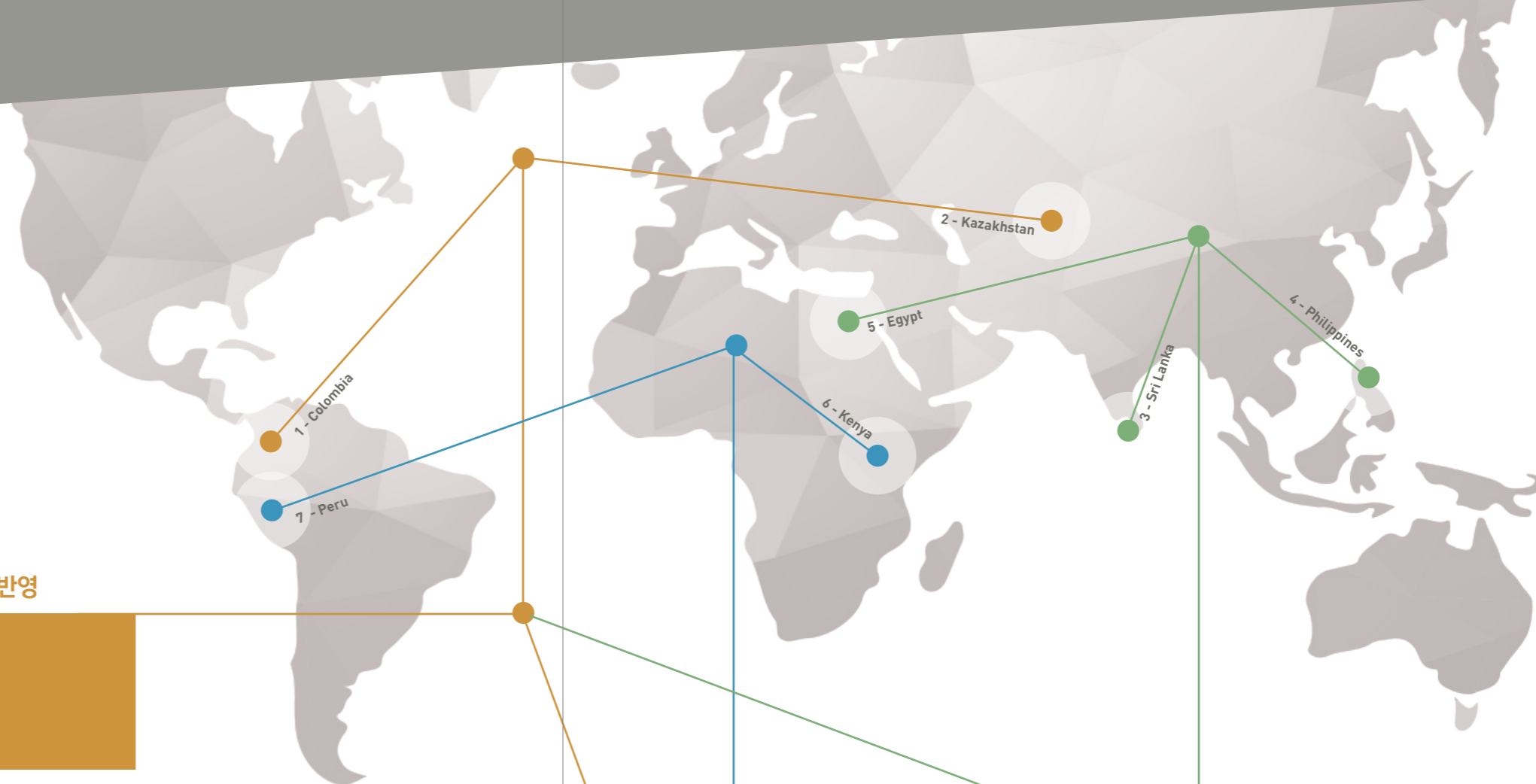
- 스리랑카 \_22p  
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필리핀 \_26p  
필리핀 축산물 품질 관리 ICT 시스템 구축 지원
- 이집트 \_30p  
이집트 특허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민간 경제협력 촉진]

- 케냐 \_34p  
아카데미 수상국 한국의 미디어산업, 케냐에 '블랙 팬서' 프로젝트 추진
- 페루 \_40p  
한·페루 조선산업 협력관계 신규 구축

기타성과사례 2020/21년 KSP 추적평가 결과 \_ 44p

국제사회의 KSP 평가 ODI, World Bank, UNESCAP \_ 46P



## 1-2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가시험소정책 마련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택보증제도 도입

## 3-4-5 인프라·시스템 구축 등 후속 사업 연계

### [스리랑카]

스리랑카 캔디 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필리핀]

필리핀 축산물 품질 관리 ICT 시스템 구축 지원

### [이집트]

이집트 특허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6-7 민간 경제협력 촉진

### [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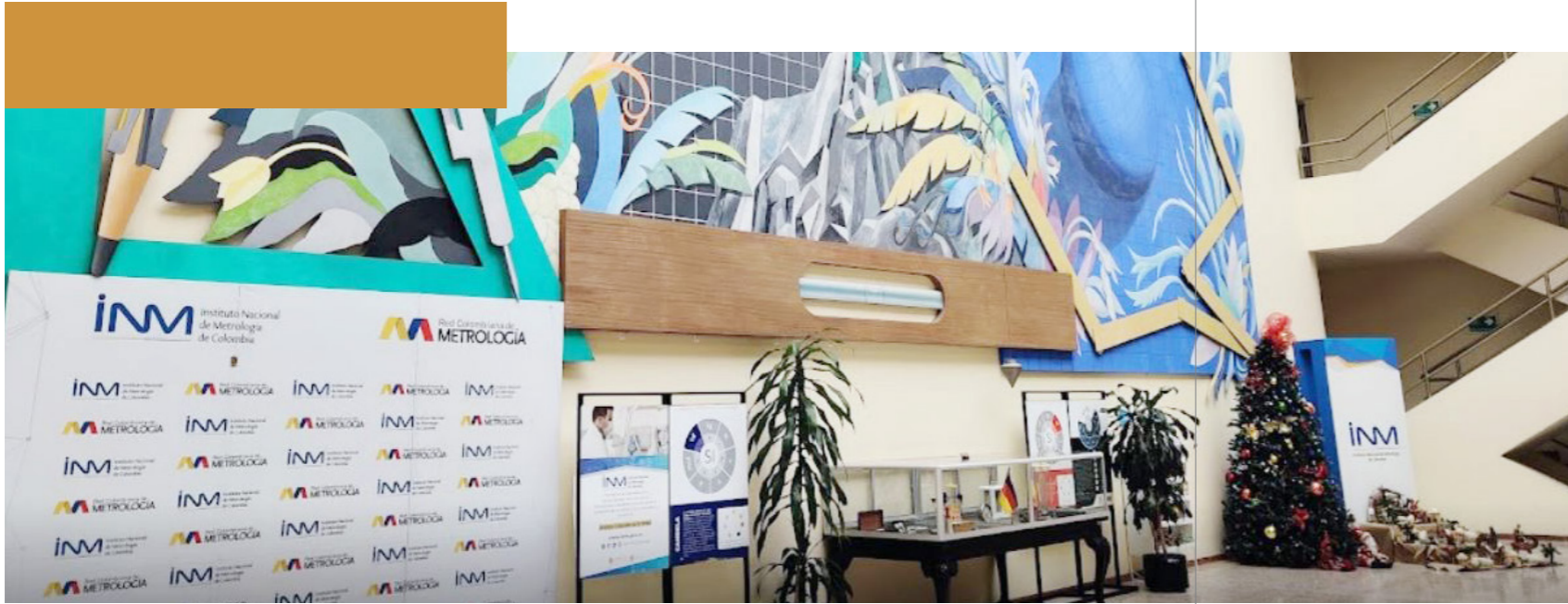
아카데미 수상국 한국의 미디어산업, 케냐에 '블랙 팬서' 프로젝트 추진

### [페루]

한·페루 조선산업 협력관계 신규 구축

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 유형별 대표 성과사례



## 콜롬비아 국가시험소정책 마련



##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Asociación Estratégica de Cooperación), 콜롬비아

- 콜롬비아와 한국의 관계 -

콜롬비아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다. 2016년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액이 3년 사이 50% 증가했다.<sup>1)</sup> 2021년 8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양국은 정기적인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중남미 17개국 개발 필요성, 경제도약 가능성, 전략적 가치, 협력의 효과성이라는 4개 항목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중 KSP 유망협력국으로 콜롬비아가 가장 높은 점수<sup>2)</sup>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 진출기업 소속 60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진출 유망국가 설문조사에서도 콜롬비아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KDI, 2020).

## 콜롬비아 국가품질 및 시험소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 KSP의 국가적 배경 -

국가표준은 산업발전의 척도이자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에 속한다. 특히, 국가의 경제활동이 국제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WTO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적 수준의 국가표준 확립과 시험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자국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였다. KSP 당시 콜롬비아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국 및 중남미 지역 국가와 활발한 FTA 체결을 통해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자국 내 측정역량 부족은 콜롬비아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무역기술장벽 극복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교정·시험 인증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부담은 콜롬비아 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수출경쟁력 향상, 기업혁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 국가측정역량에 기초한 국가품질체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14~2018 제2차 국가개발계획(2014~18)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4~18)"을 통해 국가측정인프라 확립을 위한 '국가품질 및 시험소 역량 강화 정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



1) 2016년 기준 12억 달러 수준에서 2019년 18억 달러(약 2조 1350억 원)로 증가하였다.

2) 5점 만점 기준 콜롬비아(4.2)>칠레(4.1), 파나마(4.1)>코스타리카(3.9)>멕시코(3.8)>페루(3.7)

## 한국의 우수한 국가측정 표준 역량 공유

- KSP의 내용 및 추진경과 -

한국은 불과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가측정표준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70년대 말에 한국의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국가측정표준 인적자원 확보, 정밀 측정설비 강화, 그리고 품질시스템 확립이라는 3대 핵심 요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해온 국가품질기반구조(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NQI) 정책과 측정역량 발전과정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중요한 모델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시험소정책을 수립하고자 KSP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착수된 2017/18년 KSP는 콜롬비아 정부가 추구하는 수출경쟁력 향상, 기업 혁신,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의 유사 경험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시험소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콜롬비아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국가품질인프라 운영 경험 공유'라는 대주제 하에 콜롬비아 NQI의 발전전략과 측정서비스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측정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콜롬비아 시험소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존 품질상 개선

- KSP의 성과(1) -

2017/18년 KSP팀은 콜롬비아 시험소의 측정역량 강화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 및 제조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측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에 주목하였다. 기존에 콜롬비아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국가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은 콜롬비아 정부가 국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책도구였으나 KSP 사업 당시에는 제품의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인책으로만 활용되어 정책효과성이 낮았다.

KSP팀은 품질상이 품질경영 확산을 통한 자국 제품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들을 격려하고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reshape)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콜롬비아는 KSP 이후 기존 국가품질상을 재구성하여 2019년에 '콜롬비아 수출 품질상(Colombian Export Quality Award)'을 제정하고 조직의 우수성과 기술표준 준수를 통해 국제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상을 수여하여 현재의 무역협정과 지역 가치 사슬(regional value chain)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 국가측정기관의 운영예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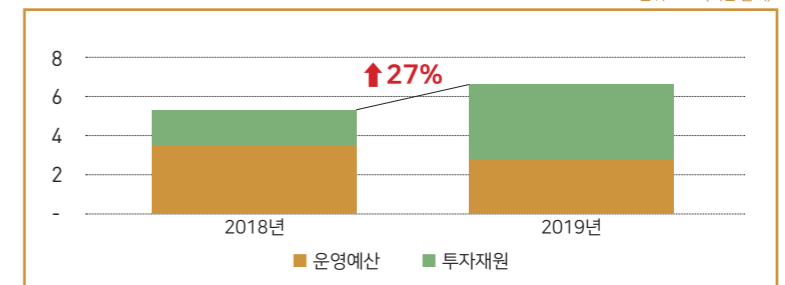
- KSP의 성과(2) -

국가측정기관의 역할은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가 측정 결과의 소급성(traceability)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없으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7/18년 사업 당시 국립측정연구원(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Colombia: INM)의 운영예산은 자체 수입의 저조로 대부분을 콜롬비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INM의 예산은 2017년 기준 6.3백만 USD로 브라질(349.1백만 USD), 멕시코(15.1백만 USD), 페루(10.4백만 USD) 등 주변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

2014~17년간 INM의 예산을 볼 때 전체 예산은 조금씩 향상되었지만 INM의 전체 예산에서 측정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4%에서 2017년 41.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KSP는 NQI 역량을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적정 규모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였으며 특히, 국가측정 대표기관 역량 강화에 우선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다. KSP 이후 INM의 운영예산은 2018년 5.3백만 달러에서 2019년 6.8백만 달러로 2018년에 비해 27% 향상되었으며 증가분의 96%가 물리적, 화학적 계측기(metrology)와 같은 측정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콜롬비아 INM의 예산 증감 그래프

단위 : USD(백만 달러)



## 자율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통한 KSP 성과 발현의 지속가능 기반 마련

- KSP의 시사점(1) -

콜롬비아는 다년간 KSP 참여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KSP 수행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협력도를 보인다. 2017/18년 KSP의 경우 고위급 인사의 높은 관심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연구수행에 필요한 수요요청 분야별 정책환경 파악이 수월하였으며 특히, KSP에 참여한 협력국 관계자 대부분이 사업결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과발현에 기여하였다. KSP는 지식의 일방적인 공유보다 지식의 현지 적용을 더욱 중시하였고 그 일환으로 KSP의 공식적인 단계 이외에도 정책제언 이행방안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개최('18.4.24.) 하여 콜롬비아 국가표준체계 수립의 핵심관계자(key players)들이 KSP가 제안한 정책과제별로 이행주체, 이행시기,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협력국 고위급의 관심, 실무진의 주인의식, 지식의 현지 적용(localization)에 초점을 맞춘 KSP 정책제언과 같은 성과발현 요소들은 콜롬비아로 하여금 '19년 자체 국가시험소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Action and Follow-up Plan을 통한 자율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콜롬비아는 계측네트워크(Colombian Metrology Network: CMN)를 재구성하여 서로 다른 기관의 효과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콜롬비아 노동부를 통해 콜롬비아 시험소 인적 역량 격차를 측정하여 직원 교육,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KSP 정책제언 수행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KSP 사업을 통한 삼각협력 (Triangular Cooperation) 가능성 제시



- KSP의 시사점(2) -

2017/18년 콜롬비아 KSP는 역내 선발 개도국과 협력을 통해 인근 저개발국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 전략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017/18년 에라도르는 콜롬비아와 유사 주제인 표준화, 기술규제, 계량측정분야 KSP를 진행하였고 동 사업이 2020년도 KOICA 국가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계량 역량강화 후속사업(2020~24년/410만 달러)으로 연계되었다. 이 외, 코스타리카 국가표준기관 법정계량 역량강화사업도 KOICA 사업(2020~24년/300만 달러)으로 추진 중이며 2017/18년 콜롬비아 사업도 에라도르 사업과 유사하게 KOICA 후속사업으로 연계하고자 하고 있다. 중남미는 타 지역과 다르게 언어, 역사, 문화, 법·제도 등에서 지역적 동질성이 강하며 소지역 경제통합이 활성화되어 있어 향후 KSP 추진 시 중남미 지역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중남미 지역에서 정치·경제 문화적 영향력이 커 삼각협력 파트너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시험소정책(National Laboratory Policy: NLP) 내 'Action and Follow up Plan'을 도입하여 Action에는 목표, 실행계획, 책임기관, 시작 및 종료 날짜, 성과지표 및 최종목표를, Follow up에는 실행계획에 대한 매 분기별 경과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기준 2019년에 수립한 실행계획 중 40.3%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국가명	콜롬비아	● 현지 협력기관	콜롬비아 국가기획처(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 사업총괄/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연도	2017년(착수연도 기준)
● 정책자문 주제	콜롬비아 산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국가품질인프라 운영 경험 공유		
●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배국환(전 기획재정부 2차관) 연구진 : 류경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최종오, 서상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고영선, 허훈(KDI)		
● 성과분류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확인성과	<p> 정책문서, 예산수립</p> <p>- '19년 국가시험소정책 마련('19.1.8)</p> <p>- '19년 국가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개정</p> <p> INM의 운영예산 증가('18년 5.3백만 달러에서 → '19년 6.8백만 달러로 27% 향상)</p>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택보증제도 도입



###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 -

1992년 수교 이후 카자흐스탄과 한국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외교<sup>1)</sup>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이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우리의 신북방 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는 1991~2000년대 초반까지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과 수출 촉진을 위한 도소매업 중심이었으나 2006년 이후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이어졌다.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 건설업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 건수는 총 78건이며 실투자액은 4.4억 달러이다.<sup>2,3)</sup>

### 카자흐스탄 주거부문 개발전략의 필요성

- KSP의 국가적 배경 -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사회복지에서 주거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 주택건설제도 및 모기지 제도 구축 등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에 지분참여법<sup>4)</sup>을 제정하여 은행이 수(受)분양자를 보호하는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카자흐스탄 내 수많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분양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소비자 약 65,000여 명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설업체 및 주택 지분 참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많은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 현지 진출 한국 민간기업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KSP

- KSP의 시작 배경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D건설사는 2005년 현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카자흐스탄 정부가 매우 비효율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5월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현 국가경제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택보증제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는 차관, 장관 주재 회의에서의 발표<sup>5)</sup>로까지 이어졌다. 2014년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장관은 선분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개발부와 국영지주회사에 한국의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과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ousing Guarantee Fund: HGF) 설립 검토<sup>6)</sup>를 지시하였다. 이후 2016년 한국방식을 적용한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Law on Equity Participation in Housing)'을 제정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 문서 中 한국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 발췌, (러시아어-한국어 번역)

카자흐스탄의 현 선분양제도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카자흐스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는 '한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건설 시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율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2010.04, 2016.11.), 문재인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2019.4.), 강경화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방문(2018.4.), 정세균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방문(2018.03.) (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2) 이재영,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엘리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KIEP, 2010)

3) 주요 프로젝트에는 '04년 통일하이빌의 아스타나 주상복합단지건설사업(1조 6천억 원 규모) '08년 우림 알마티 애플타운 건설사업(4조 5천억 원 규모) 등이 있다.

4) 주택지분 참여(equity participation)는 우리나라의 주택 선분양과 같이 미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주택을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5) 주요 발표: ① 2013년 5월 '지분 참여 건설 관련 문제 사항들 해결에 대한 제안' (지역개발부 과장 대상), ② 2014년 2월 '지분참여법 개정 제안을 위한 한국의 주택보증제도' (지역개발부 장관 주관 working group 회의), ③ 2014년 5월 '지분참여 투자의 보증 메카니즘' (지역개발부 장관 주관 working group 회의)

6) 기존 Kazakhstan Mortgage Guarantee Fund를 기반으로 한 신규 기관

## KSP의 본격적인 시작

- KSP의 내용 및 추진경과 -

2016년 4월 신규 제정된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은 같은 해 10월 법적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법률의 이행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했다. 따라서 2016년 6월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경제부 제1차관 명의로 KSP 사업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2016/17년 KSP는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주제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여건 및 주택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카자흐스탄-한국 간 주택보증제도와의 정책 비교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SP 연구진은 카자흐스탄의 효과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현황에 기반을 둔,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비중 있게 다루어 카자흐스탄의 제도 도입 및 발전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17년 KSP는 '주택보증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2019/20년 KSP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었다. 2019/20년 KSP는 HGF의 보증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분양보증 심사운영 강화방안, 주택보증 사후관리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주택건설사 신용도 평가 체제 정비와 주택보증료율의 인하

- KSP의 성과 -

2016/17년 KSP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 법 제정 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하위법, 시행규칙, 규범문건 등에 반영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2016/17년 KSP를 통해 제시된 주택건설사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한 제언을 수용하여, 현재 법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주택건설사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은 기존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이 정한 높은 보증료율(사업비의 2~6%)의 인하로도 이어졌다. 카자흐스탄 HGF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체제가 완비되지 않아 보증의 위험이 크다고 여겨 주택건설사의 보증료율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이는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민간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2017년 8월 21일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시행령 "주택보증료율에 관한 시행령 No.567"<sup>7)</sup> 개정을 통해 2~6%였던 보증료율을 2% 고정으로 모든 사업개발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법이 발효된 이후 2020년까지 보급 완료될 주택 가구 수 총 21,611개 중 4,956(약 23%)이 HGF<sup>8)</sup>의 주택보증제도를 활용하였다. 2019/20년 KSP로 위 보증료율은 다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1%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향후 카자흐스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size of the guarantee contribution

8) Baiterek Development, Kazakhstan Mortgage Company, Housing Guarantee Fund 가 Single Housing Operator라는 기관으로 2020년 10월에 통합되었고, 통합된 기관에서 분양보증 발급업무가 지속될 예정이다.



## 민간과 현지 정부의 가교(Bridge) 역할을 한 KSP

- KSP의 시사점 -

본 사업의 시작 배경과 KSP로의 연결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본 사업은 한국 기업의 문제의식과 현지 정부 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학습에서 시작되어 지식공유사업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의 비효율적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국의 안정적 주택 공급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증률 인하와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확대하여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의 성과발현에는 협력국 정부의 KSP에 대한 높은 이해 및 정책 반영 의지도 중요했다. 2009년부터 지속한 KSP 경험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축적되어 있었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KSP의 목적과 기대성공과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7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2019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 K A Z A K H S T A N

## 카자흐스탄 KSP성과 발현 과정



### 01

#### 해외 진출 및 현지활동의 애로사항 인식

- D 건설사는 2005년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주택 건설사업 진행하던 중, 카자흐스탄의 비효율적인 주택 관련 법·제도에 문제점을 인식
- D 건설사는 카자흐스탄 공무원에게 한국의 주택보증제도를 소개



### 02

#### 애로사항 개선 관련 KSP 제안

-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한주택보증공사(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도움을 받아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을 제정하고, 신규 제정된 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KSP 사업신청서를 제출



### 03

#### KSP 추진 및 주요 성과

- 관련 주제로 카자흐스탄 정부와 2차레\* KSP를 추진
- \* 2016/17년 KSP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2019/20년 KSP 카자흐스탄 주택보증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카자흐스탄 정부는 KSP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관련법을 개정



### 04

####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활동 기회 확대

- 현재 카자흐스탄에 건설 중인 주택의 약 20%가 주택보증제도를 활용 → 제도 도입이 카자흐스탄의 안정적 주택 공급, 분양자 보호에 기여
- 협력국의 비효율적인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증대

## 사업 개요

● 국가명	카자흐스탄	● 현지 협력기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Ministry of National Economy)
● 사업총괄/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연도	2016, 2019년(착수연도 기준)
● 정책자문 주제	카자흐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 주택보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16년)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및 운영개선방안('19년)		
● 2016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김용덕(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연구진: 손재영(건국대), 김태현(연세대)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권경덕, 허훈(KDI)		
● 2019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진웅섭(전 금융감독원장) / 연구진: 최우석, 방두완, 권혁신(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자 : 방호경, 최혜원(KDI)		
● 성과분류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민간 경제협력 촉진		

● 확인성과

- 법률, 규정 수립
  - '16년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 제정,
  - '17년 주택보증료율에 관한 시행령 No.567 제정
- 기관 및 조직 설립/개편
  - '16년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 설립
- 민간기업/공공기관 진출지원
  - 주택보증료율 완화로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지원

2016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2019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 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새로운 기회의 땅, 스리랑카

- 스리랑카와 한국의 관계 -

스리랑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인 KSP 추진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업관계자의 협력도가 높다. 스리랑카는 201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로 교통망 확충, ICT를 활용한 교육분야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6개 사업(29개 주제)에 대해 KSP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등 교육분야 선진화를 위한 ICT 활용 방안 수립 등 정책제안을 토대로 후속 연계 성격의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양자·다자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민간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 공적원조 등을 통한 새로운 개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Tech City, 콜롬보 Smart City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도로, 항만 등 사회 인프라 개발·건설이 부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많다.

## 교통인프라 개선의 필요성

- KSP의 수요 배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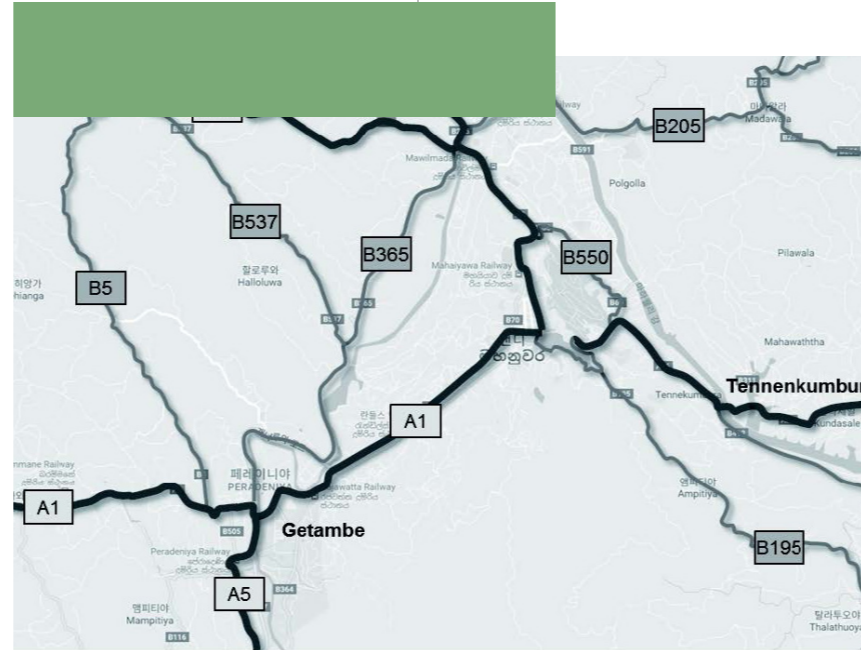
2016/17년 KSP 대상지인 캔디(Kandy)시는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1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스리랑카 제2의 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이다. 그러나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및 도시 확장이 어려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도로망이 비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추세이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캔디시 개발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EDCF 지원을 통한 우회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캔디터널(Kandy Tunnel)을 건설(17년 5월 승인/199.3백만 달러 규모) 준비중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행패턴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와 남동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전제로 한 중장기 도로망 체계 계획 수립이 중요한데도 사업 당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캔디시 도시 전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KSP를 통해 북부와 남동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등 교통망 확충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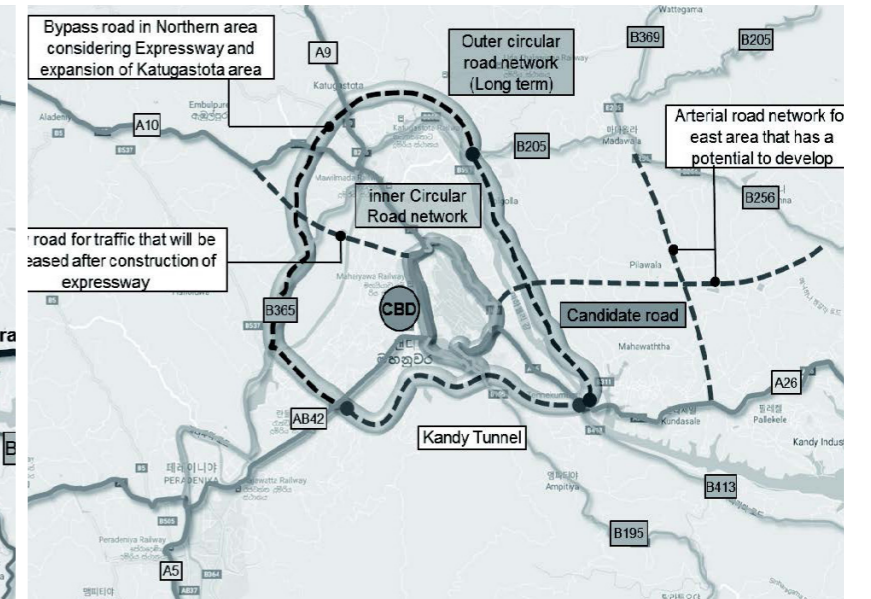
## KSP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

- KSP의 개요 및 사업내용 -

본 사업은 한국의 교통망 확충 경험을 공유하고, 캔디시의 도시 및 교통망 특성을 고려한 한국의 유사도시 사례 분석을 통해 캔디시 북부와 동부지역 간 연결성 강화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캔디시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6개 도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한국의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캔디시 도심 내 교통혼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최적도로망을 제시하였다. 최적도로망은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중기안과 신규 도로를 활용하는 장기안으로 구성하였다. KSP는 교통 분야 전문 연구자를 선정해 캔디시 동부 마하웰리 강변 지역의 남부 테네크부라(Tennekumbura) 다리부터 폴가야(Polgalla) 댐 구간 및 카투가스토타(Katugastota) 교차로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장애 수요를 예측하여 교통망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7년 3월 도로개발청 담당 공무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도시개발과 교통망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센터, 공주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견학하였다. 양국 담당자들은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업 범위, 연수기관 등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캔디시 도로망 체계 현황 |



| 캔디시 도로망 장기 구상안 |

## 캔디시 외부 순환망 장기 로드맵 제시와 국내 후속사업(EDCF)과의 연계

- KSP의 성과 -

KSP는 캔디시의 특성을 고도(古都; high historical value), 고도(高度; high land), 고밀(高密; high density)의 3가지로 정의하고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도로 및 순환도로망 구축, 정체구간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최적도로망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재 캔디터널 건설사업은 '17년 5월 승인 이후 컨설턴트 선정 검토 중에 있으며, '22년도 1분기 차관협정(Loan Agreement: LA) 체결 예정이다. 향후 캔디 터널 건설을 통해 캔디 시내 교통량 분산 및 지·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우회기능을 통한 교통 효율성 증대 및 인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유무상 사업 간 연계 및 한국 민간기업 진출 가능성 확대

- KSP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KSP는 EDCF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캔디터널과 연계한 외곽순환도로망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ODA 유무상 사업 간 연계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스리랑카 중·남부에 산악 지대가 다소 분포함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동 사업을 계기로 풍부한 터널 시공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스리랑카 교통분야 후속사업으로 현지 진출 확대 또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투자 증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스리랑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 개요

● 국가명	스리랑카	● 현지 협력기관	스리랑카 도로개발청(Road Development Authority)
● 사업총괄/수행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국토연구원, (주)한국종합기술	● 사업수행연도	2016년(착수연도 기준)
● 정책자문 주제	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 방안 수립		
●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한만희(전 국토해양부 차관) 연구진 : 오성호, 김종학, 이백진(국토연구원), 류진규, 박민수, 유호근((주)한국종합기술)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손승호, 문재정, 김유신, 홍경선, 김지나(한국수출입은행)		
● 성과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국내후속협력 연계		
● 확인성과	<p>📄 정책문서, 예산수립 스리랑카 캔디시의 교통현황 및 장애 수요 예측을 통해 북부 및 동부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및 기존 도로 개선방안 제시(2017)</p> <p>🏦 금융지원(EDCF) EDCF 캔디터널 건설사업('17년 5월 승인, 199.3백만 달러 규모)과 연계를 통해 도로망 구축</p>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 필리핀 축산물 품질 관리 ICT 시스템 구축 지원



### 경제정책부터 ICT분야까지 협력관계의 다변화

-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 -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에 수교한 전통 우방국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농업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필리핀 KSP는 2011년에 처음 진행되었으며, '21년 기준 총 19개(31개 주제)에 대한 KSP를 완료하였다. 초기에는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민관협력사업(PPP) 정책,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KSP를 주로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가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 개방형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등 ICT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축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ICT 시스템 구축 지원의 필요성

- KSP의 수요 배경 -

축산업은 필리핀 전체 농업생산의 30.34%를 차지하는 주요 분야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품질평가, 검역시스템이 부재하다. 통일된 축산물 이력관리 법령이 없으며, 전산 시스템의 부재로 축산물 소유권 이전 등의 제한된 정보만 문서로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다. 또한, 도축된 축산물의 50%만 신고되고 일부 수입 축산물의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축산물 유통관리 및 품질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에 필리핀 농업부는 축산물 이력관리 및 유통관리, 품질평가, 검역관리를 위한 ICT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 KSP를 신청하였다.

### KSP의 본격적인 시작

- KSP의 개요 및 사업내용 -

2018/19년 KSP는 필리핀 농업부의 요청으로 축산업 현대화 및 축육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이력제, ICT 로드맵, 시범사업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필리핀 축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력제 및 축산인프라 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그 분야의 정책권고와 축산업에서 요구되는 ICT 시스템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시범 사업에 대한 설계·예산 추정 및 예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축산업 ICT 및 사업 기획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이블정보기술을 선정하여 총 5번의 현지조사 및 한국의 경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리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방향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 축종은 돼지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지역은 3개 지역-루존(Central Luzon Region, Region-3), 비사야스(Central Visayas Region, Region-7), 민다나오(Northern Mindanao Region, Region-10)에서 시범 추진하여 향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축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확립 및 EDCF 사업 추진기반 마련

- KSP의 결과 및 성과 -

KSP팀은 필리핀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을 정의하고 정책의 추진방향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구체화하여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한 필리핀 축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정부, 축산업 종사자 및 고위 의사 결정권자의 공감대 형성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 KSP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EDCF 후속사업 추진을 전제로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보고서 작성 시 EDCF 과업 설계를 염두에 두고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술·정책·법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 정부 및 3개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무원들의 축산물 이력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KSP를 통해 EDCF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업 종료 후 필리핀 정부는 '20년 2월에 EDCF F/S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F/S를 진행(20.11.16.~21.10.7.)하였으며, EDCF 사업 규모는 약 1억 달러 정도로 '22~'23년 중 승인 예정이다. 축산물 이력제 실시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ICT 시스템이 구축되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필리핀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는 축산물에 대한 지불의사가(willingness-to-pay)를 높여 축산 농가의 수익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윌리엄 달(WILLIAM D. DAR)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EDCF 타당성 조사 결과 논의 시 "추적성(traceability) 시스템을 갖춘 현대 축산 인프라 및 검사 시설 구축을 통한 육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였다.

## KSP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 제고 및 통합된 시각 공유

- KSP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2018/19년 KSP를 통해 필리핀 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제고되었고 필리핀 내 다양한 축산업 관계 기관들은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리핀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 통합된 시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은 단편적인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사업 계획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DCF F/S 종료 이후 본 사업에 한국 기업이나 IT업체가 참여하여 필리핀 축산물 유통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필리핀에서 추진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인근 국가로 파급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는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ICT와 융합하고 아시아 국가의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모델을 구축할 경우, 축산분야에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 사업 개요

● 국가명	필리핀	● 현지 협력기관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사업총괄/수행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농협협회컨설팅, 에이블정보기술	● 사업수행연도	2018년(착수연도 기준)
● 정책자문 주제	필리핀 축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축산업 ICT 시스템 구축		
●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이상길(전 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 / 연구진 : 박성기, 박용호, 허균, 허재우, 박혁, 김병삼(한국농협협회컨설팅)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양중배, 김지은, 이기영(한국수출입은행)		
● 성과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국내후속협력 연계		
● 확인성과	<p>📄 정책문서, 예산수립 축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ICT 시스템* 마스터플랜 제시(2019) * 축산물 이력관리 통합데이터센터, 이력관리시스템, 수입품 자동 검역시스템 등</p> <p>🏦 금융지원(EDCF) EDCF 후속사업 추진 중(F/S '20.11.16.~'21.10.7. '23년 중 본 사업 승인 예정)</p>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 최종보고회 |



| 고위정책대회 |





## 이집트 특허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한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이집트

- 이집트와 한국의 관계 -

이집트는 199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이집트는 한국을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로 인식하고 한국의 교육 및 개발 경험 공유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 특히 국가혁신, 경제, 과학, 인력 양성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집트 KSP는 '12년 12월 카이로에서 열린 제2차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 당시 이집트 14개 정부부처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KSP 설명회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수출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조세재정제도 개선, 과학기술단지 운영전략 수립 등 총 13개 사업(25개 주제)에 대한 KSP를 진행하였다.

### 이집트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 KSP의 국가적 배경 -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이다. 이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역할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경쟁 양상도 무형자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인구 규모, 자원보유 등의 측면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이집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50~60년대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sup>1)</sup>는 생산성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지속된 테러로 인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집트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에 국가개발전략 'VISION 2030'<sup>2)</sup>을 수립하고 경제개발,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행복 실현, 경제·사회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혁신·지식 및 과학연구 활동을 장려하며 세부 성과지표로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20위, 지식재산권 분야 20위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16/17년 사업 당시 이집트의 특허법이 포함된 지식재산권법(Law no.82/2002)은 2002년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며 특허정보 관련 전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검색 시스템 또한 낙후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2) 'VISION 2030'은 ① 경제개발 ② 도시개발 ③ 사회회정의 ④ 교육 ⑤ 보건 ⑥ 혁신·지식 및 과학연구 ⑦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⑧ 문화 ⑨ 환경 ⑩ 에너지 ⑪ 국가정책 ⑫ 외교정책·국가안보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



| 현지보고회 및 세부실태조사 |





##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 선행(先行) 경험 공유

- KSP의 내용 및 추진경과 -

한국은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 강화에 동참하였으며, 2011년 통합「지식재산기본법」제정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및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선진 외국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도모하고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제도의 국제화를 모색하였으며 특허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개인, 정부 및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쉽게 창출, 활용 및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2016/17년 KSP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1) 이집트와 한국지식재산권 법에 대한 비교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2)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3) 지식 재산권 행정정보화 효율화 전략 및 자원조달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효과적인 자문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였고 연구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는 지역·주제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자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단계별 연구 진행현황을 점검하였다. 현지에서는 특허법 개정위원회 위원 및 특허행정시스템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협력국의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하였다.

## KOICA 사업으로의 후속연계 의

- KSP의 성과 -



KSP 종료 이후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한-이집트 특허청 간 협력방안 회담이 개최(17.2.28)되었고, 이집트 KSP팀이 공관 주재로 개최된 제3분기 진출기업협의회(17.10.12)에 참석하여 이집트 특허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특허출원 및 보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KSP 정책제언이었던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시스템 개선방안의 실제 도입을 위해 이집트 총괄부처인 국제투자협력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IC)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특허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요청하였고,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타당성 조사 및 외교부의 승인을 거쳐 2019년 외교부 ODA 사업으로 최종 선정(2019~22년, 290만 달러/한화 약 34억 원)되었다. 이를 통해 특허 관련 포털과 검색시스템이 구비되었고, 이용자들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특허 신청이나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한편, KSP 정책제언이 반영된 특허법 개정안은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아카데미, 고등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집트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승인 대기 중에 있다.

## 한국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국가현황 파악과 후속사업 연계 기획

- KSP의 시사점(1) -

본 사업의 성과발현 요소로 (1)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주제 선정과 전략협력분야를 협력국에 먼저 제시한 점, (2)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후속사업으로의 연계를 염두에 둔 점을 들 수 있다. KSP는 이집트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집트뿐 아니라 여러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 사업 개요

● 국가명	이집트	● 현지 협력기관	이집트 특허청(Egyptian Patent Office)
● 사업총괄/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사업수행연도	2016년(착수연도 기준)
● 정책자문 주제	이집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정책자문		
●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한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진 : 허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동현, 김성연, 이봉건(한국특허정보원)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설광연, 전인재(KDI)		
● 성과분류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국내 후속협력 연계		
● 확인성과	 <b>법률, 규정 수립</b> 특허법 개정('21년 현재 국회 승인 대기 중)	 <b>후속부처(기관) 사업협의</b> - KOICA 사업으로 연계(2019~22년, 약 3백만 달러 규모) - 한-이집트 특허청 간 협력방안회담 개최('17.2.28.)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서면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현지의 통계현황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인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현지 특허청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KSP로 연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례 개최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총회를 통해 한국과 협력국의 고위급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기반을 갖춘 것도 본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에 주요하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본 사업은 KSP 기획단계에서부터 KOICA 사업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 당시 KOICA 이집트 사무소장을 KSP 자문평가회의에 주제자문평가위원으로 섭외하였고 이후, KOICA 중동 아프리카 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후속사업 연계방안을 협의하였다. KSP는 정책자문을 통해 이집트의 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인프라 구축 이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유형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연계되기까지 중간다리(bridge) 역할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KSP와 KOICA 사업의 성공적인 연계는 향후 한국 ODA 사업 간 연계모델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모델의 확대

- KSP의 시사점(2) -

KSP를 통한 특허법·제도 및 관련 시스템의 개선은 특허제도의 투명성·신뢰도 제고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이루어 이집트 국민들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며 국가개발전략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긴밀한 특허협력은 한국의 경우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식재산권분야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채널이 되고, 이집트의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무형자산의 가치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집트 지식재산권 제도의 고도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와 무역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특허협력(PTC)<sup>3</sup>총회가 지정한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유일의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으로서 역내 거점국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 특허법·제도 및 관련 시스템의 개선은 주변국의 제도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Patent Cooperation Treaty : 1970년 체결된 국제특허조약으로 현재 152개 국가 가입



## 아카데미 수상국 한국의 미디어산업, 케냐에 '블랙 팬서' 프로젝트 추진



###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 (Digital Media Center: DMC)를 모델로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DMC 개발추진

- 케냐 KSP 추진 경과 -

KOTRA는 18/19년부터 KSP를 통해 여의도 면적 7배 규모의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에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69년부터 현지 무역관을 운영하  
는 KOTRA가 산업기반이 부족한 케냐에 상암 DMC를 모델로 한 '아프리카의 할리우드' 조성을  
제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간 세계적인 영화제작사에서 고전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마블스튜디오의 히어로물 <블랙 팬서> 등 '아프리카 콘텐츠'를  
영화화하며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관심을 얻었지만, 이런 자산을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으로 육  
성하려는 전략은 부재했다.

이에 '18년, '19년 2개년에 걸친 KSP 사업은 케냐의 문화와 자연, 한국의 미디어산업을 결합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제2의 블랙 팬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콘자 테크노폴리스 디  
지탈미디어센터(DMC)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총괄하는 케냐 ICT  
부와 콘자개발청에서는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해 18만평의 부지를 할애하는 등 본 사업  
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성공적으로 1차 KSP를 종료한 후 케냐 콘자개발청은 20/21년 KSP 후속사업을 요청했다.  
18/19년 KSP가 디지털미디어센터를 통해 디지털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  
었다면, 20/21년 KSP를 통해서 케냐의 디지털미디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  
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국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1년 후속 KSP  
를 통해 '케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케냐의 게임, 애니메이  
션, 영화, 사진 분야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 DMC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KSP 결과를 바탕으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재원을 통  
해 실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부지 ]



## 2018/19년 '콘자 테크노폴리스 DMC 조성 정책자문'

- 케냐 KSP 사업내용(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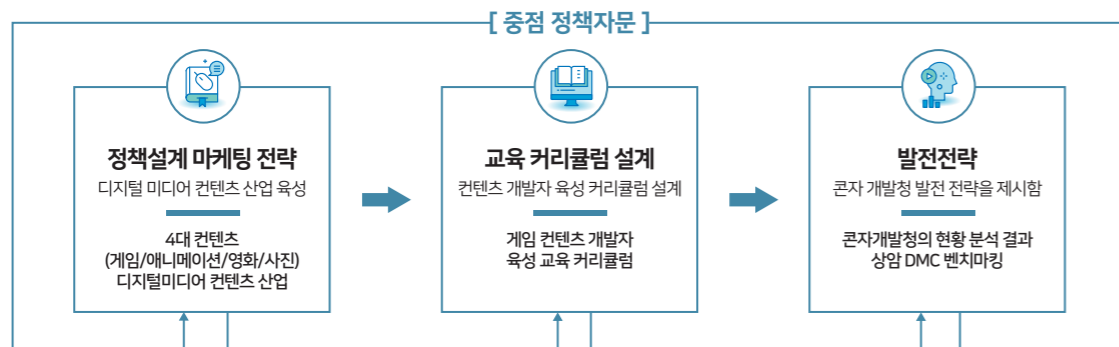
2018/19년도 케냐 KSP는 콘자 DMC의 콘셉트 개발, 사업성 분석, 관련 규제 및 법률 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자금 조달계획 검토 등을 포함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한국의 상암 DMC 모델을 벤치마킹해 사업 효과를 전망하고, 콘자 DMC 기본계획을 제안했다. 2018년 12월 케냐 정보통신부 CFO 등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재 수립 중인 2차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입지, 교통, 인프라 등 DMC 대상지의 투자 환경을 점검했다.

국내 기업의 케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4월 케냐 국회, 정부 부처, 지방정부,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청,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기업 관계자 등 25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케냐 디지털미디어 시장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30개 기업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콘자 DMC 조성계획, 케냐 디지털미디어 시장 환경,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현지 민간 콘텐츠업체 현황 등을 소개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콘자 DMC가 조성되는 마쿠에니 카운티의 키부타 킵와나(Kivutha Kibwana) 주지사가 직접 투자 환경을 발표하고, 존 타누이(John Tanui) 콘자 개발청장이 DMC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외에도 국회C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명, 케냐 영화진흥위원회 대표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케냐 정부와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

## 2020/21년 '케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안' 정책자문

- 케냐 KSP 사업내용(2) -

20/21 KSP를 통해 콘자개발청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방안, 그중에서도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사진 분야 콘텐츠 개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래전파공학연구소와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1)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사진 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2) 게임 콘텐츠 개발자 육성 방안, (3) K-DMC 생태계 조성 방안 및 중점 추진과제, 관리운영 등을 핵심 결과로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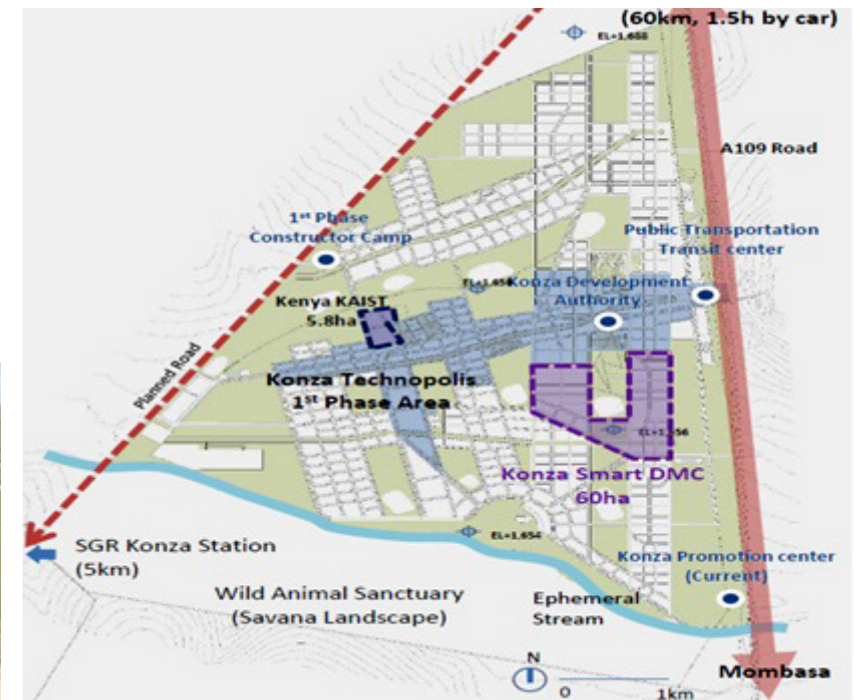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도모

- KSP의 결과 및 성과 -

케냐 KSP는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협력국이 받아들여 구체화된 사업이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조성에도 공동 참여한 윈-윈(win-win)형 프로젝트이다. 향후 동 사업을 통한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사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KSP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대규모 인프라 민간 경제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EIPP<sup>1)</sup> 사업을 출범하였으며,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2021년 EIPP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EIPP는 협력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개발전략 수립, 법적 기반 마련,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자문과 실질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마스터플랜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유무상 패키지형 사업 추진을 통해 ODA 사업 간 분절극복 효과 및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1)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



	콘자 테크노폴리스 전체부지 (5,000acre, 610만평)
	콘자 테크노폴리스 1단계 부지 (500acre, 61만평)로 4개 밴드 형태 용지 사용계획 수립 (교육밴드 내 케냐 과학기술원(KAIST) 설립 추진 중, EDCF 자금)
	2단계 부지 내 18/19년 KSP를 통해 제안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18만평)

## ‘실리콘 사바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추진

- KSP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선도적인 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급증하여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케냐는 ‘실리콘 사바나(Silicon Savannah)’를 표방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허브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콘자 DMC 개발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케냐의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케냐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스트 조성 부지|



|콘자테크노폴리스 인프라 현황|



### 사업 개요

● 국가명	케냐	● 현지 협력기관	케냐 콘자개발청(Konza Technopolis Development Authority)
● 사업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연도	2018년/2020년(착수연도 기준)
● 관련 정책자문 주제	콘자 테크노폴리스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정책자문('18년) 케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안('20년)		
● 2018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김종경((주) 동양 상임고문) 연구진 : 이재훈(한국외국어대), 박영호(KIEP), 김창대(동서대), 임동원(도화엔지니어링), 박준(서울시립대)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김승기, 유동길(KOTRA)		
● 2020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윤태용(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연구진 : 김이백, 지헤드 제마이((주)미래전파공학연구소), 이춘성, 장신석((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자 : 박철호, 김승기, 김태경(KOTRA)		
● 성과분류	협력대상국 정책 반영, 국내 후속협력 연계(금융지원/기술지원), 민간경제협력 촉진		
● 성과요약	<b>정책문서/예산수립</b>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2019)	<b>기술지원/EIPP<sup>1)</sup></b> EIPP 후속확대사업 추진(2021~2024)	
	<b>금융지원/EDCF</b> 실제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한 수출입은행 F/S 추진 ('21년 현재)	<b>민간기업연계</b>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사진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한-케냐 학계 및 기업 연계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 한·페루 조선산업 협력관계 신규 구축



###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페루 조선사업 현대화 추진

- 페루 KSP 사업 배경 -

페루에서 가장 큰 조선소로 약 160년의 역사를 보유한 페루 국영조선소(Servicios Industriales de la Marina S.A.: SIMA)는 1900년대 후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선박 및 대형 강재(鋼材) 구조물을 제작/생산하며 페루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페루 국영조선소는 그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증가하는 대형선박 수리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페루 국영조선소는 국가경제발전 과제 중 하나인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 조선 및 수리시설 능력 증진」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페루 국영조선소는 세계 1위의 조선 기술 보유국인 한국의 조선산업 개발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 수리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한 개발 방향 및 정책 제언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간 조선산업의 협력 파트너 신규 발굴을 통한 공동 발전 모색을 희망하였다.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 조선산업의 확장 및 발전방향 제시

- KSP의 내용 및 추진경과 -

페루 국영조선소는 1845년 해군 공장으로 시작하여 1950년부터 국영조선소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남미 조선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의 노후화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 선박 대형화 트렌드 및 기술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 국영조선소는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을 잘 알고 있으며 페루의 동 산업분야 발전의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한-페루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2018년 9월 KSP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페루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 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및 전략수립」이라는 주제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KOTRA를 통해 KSP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KSP팀은 전 세계 조선산업 분야 1위인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과정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페루의 조선산업 확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페루 국영조선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조선시설인 까야오 조선소 확장을 계획하고 일련의 기술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KSP 사업을 통해 기술조사, 자체 보고서 등을 취합하고, 확장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페루 기재부에 보고하여 까야오 조선시설 현대화 및 확장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KSP팀은 현지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을 위한 건선거(dry dock) 또는 부선거(floating dock) 시설 구축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페루 국영조선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페루 조선산업에 필요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 까야오 조선소 현대화 사업 및 페루 해군 이전 정부 간(GtoG)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기대

- KSP의 성과 -

KSP는 페루 국영조선소 까야오 조선소의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의 수리조선소에 대한 수요 및 개발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그 결과 '페루 까야오(Callao) 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 사업(8억원)'이 한국 해양수산부의 첫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까야오 수리조선소는 페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로서 페루 국영조선소가 직접 재원을 활용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당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한국기업이 해외 항만개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SP는 산업투자 KSP 사업의 일환으로 페루 국영조선소 인사와 한국 조선산업 기자재 업체 간 투자환경과 정책 등을 설명하고 페루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연계사업을 개최하여, 페루 조선소와 한국 조선기자재 기업 6개사가 참여하였다. 페루 조선소의 기자재가 상당히 노후화된 만큼 페루 국영조선소 측에서 관심을 보인 한국 기업은 주로 조선소의 선박 제조에 필요한 가공기계 납품 업체였으며, 페루 국영조선소에 필요한 각종 상품과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페루 정부는 21년 5월 10억달러 규모의 까야오 조선소 현대화 및 해군기지 이전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한국 기업의 사업기회(business opportunity)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업 세부내용 및 보고서 보기

## 한국 선진 조선기술력 제공 및 공유를 통한 조선업계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 KSP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중남미 지역은 파나마 제2 운하 개통 이후 기항 선박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페루 국영조선소에서 모색하고 있는 파나맥스 또는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 수리가 가능한 수리조선소의 개발은 중남미 지역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끌 기회이며,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까야오 해군기지 이전 및 조선소 확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중남미 대형선박 수리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까야오 항만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조선분야 기술교류 및 민간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고 페루 조선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의 선진 조선기술력을 제공 및 공유함으로써 세계 조선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착수보고회]



[1차 실태조사]



[실무진 협의]



[고위 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 사업 개요

● 국가명	페루	● 현지 협력기관	페루 국영조선소(SIMA)
● 사업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연도	2019년(착수년도 기준)
● 관련 정책자문 주제	페루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 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및 전략 수립('19년)		
● 사업참여인력	수석고문 : 이희범(LG상사 고문) 연구진 : 박성만, 이광호, 최연주, 전형원, 정남호, 노지현, 이정홍, 최광석, 양화영(도화엔지니어링), 장경식, 조영광, 최승철, 유춘석(케이알엔지니어링), 김상열(부산대), 류동근(한국해양대), 박호(군산대), 정승호(SM상선)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 박철호, 이성희(KOTRA)		
● 성과분류	국내 후속협력 연계, 민간 경제협력 촉진		
● 확인성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b>후속 부처(기관) 사업 협의</b> 해양수산부 협업 페루 까야오 조선소 확장 F/S 연계(8억원)</p> </div> <div> <p><b>민간기업연계</b> - 페루 조선소-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6개사 회상 상담회 개최 - 페루 정부 발주, 까야오 조선소 현대화 및 해군기지 이전 G2G 프로젝트 참가 추진 중, 국내 컨소시엄 제안서 제출 ('21년 5월, 10억달러 규모)</p> </div> </div>		

# 기타 성과사례

## 2020/21년 추적평가<sup>1)</sup>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되었던 세계경제는 2021년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5.9%, 2022년 4.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2021).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세계경기 회복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경제회복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장기적 정책 공조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2020/21년 추적평가 결과 대부분의 협력국이 소폭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협력국 간에도 회복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KSP 정책권고를 구체화해나가는 협력국의 노력과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페이지에 2020/21년 추적평가를 통해 확인된 KSP 성과 일부를 담고자 한다.

1) 추적평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운영지침 제32조에 따라 수행되는 사후 모니터링 활동으로서 사업종료 후 2년 이내 협력대상국 관계자와의 면담, 문헌조사를 통해 개별사업 내 자문과제별로 단기성과를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제언의 유용성과 반영도를 확인하여 후속사업의 연계를 도모하며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이를 기획 단계에 환류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의 사업 개선·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현지협력기관  
소노라주 생태·지속가능개발위원회  
(Commission for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tate of Sonora: CEDES)  
정책자문주제  
멕시코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멕시코]

### 몽골 2019/20년

#### KSP를 통해 몽골 거시경제 관리 및 안정화 정책 수립에 기여

몽골은 지난 27년간 IMF 구제금융을 여섯 차례 받았고, 광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흔들리는 등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에 2019/20년 KSP를 통해 거시경제 관리 및 안정화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KSP연구진은 사업진행과정에서 (1) 몽골의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무부 내부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2) 재정안정화률(fiscal stabilization rule) 개정을 위한 재무부 내부 추진계획 수립, (3) 재무부의 외환정책 수립권한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언하였다. KSP 이후 재무부 내부에서 FDI 촉진 정책, 산업무역 다변화, 재정 및 금융정책 조정,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안정화률을 현행대로 재정운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수치 대신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한 재정기준 설정과 일시적 예외 조항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KSP 정책제언은 2020년 몽골 거시 진단 분석 보고서에 포함되어 몽골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었으며 몽골은 KSP를 통해 제언된 MIDAS 회귀분석 기반 나우캐스팅(nowcasting) 모델을 활용한 경제전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양상으로 글로벌 경제가 움직일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사업은 다양한 이론적 모형을 비교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몽골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멕시코-GGGI(공동컨설팅) 2019/20년

#### KSP, 멕시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공헌

멕시코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하고 기술 및 금융지원이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KSP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멕시코 소노라주 에르모시요시(市)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사업모델 개발, 바이오가스 개발 실증 및 성공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개발 및 이행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법률적·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멕시코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2020/21년 추적평가를 통해 KSP가 소노라주 정부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소노라주 내 폐기물 및 플라스틱에 대한 법률(the act on waste and plastic)이 '21년 4월에 승인되어 '22년 1월 시행 예정이며 KSP의 정책제언이었던 생산자 및 지자체 쓰레기 매립지 비용 분담에 대한 법률(the 1st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이 제정 추진 중이다. 비록 현 정권의 석유·가스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인해 당분간 멕시코 내 다른 주로 동 사업모델 확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소노라주 생태·지속가능개발위원회(CEDES)가 사업추진과 정책개선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소노라주 사업을 계기로 멕시코의 다른 주에서도 바이오가스 개발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현지협력기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정책자문주제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 복합단지  
설립방안 연구  
[우즈베키스탄]

현지협력기관  
몽골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정책자문주제  
몽골 거시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몽골]

현지협력기관  
필리핀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정책자문주제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필리핀]

### 우즈베키스탄 2018/19년

#### 우즈베크 국립의료 복합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한 KSP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설 대부분은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의료장비도 주로 구소련 시절 장비로 운용 중인 병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나 전문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구 소련 보건 의료 시스템의 잔재로 3차 병원<sup>2)</sup>을 전문과별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교육·연구·진료의 상호연계성이 낮아 시너지 창출이 어려우나,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국제적 수준의 병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착수한 2018/19년 KSP는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기존 보건 의료체계 및 현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립의료 복합단지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 다방면의 종합적인 의학연구를 발전시키는 국립의료 복합단지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4차 병원 또는 타슈켄트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국립성인병원을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으로 변경해야 하며 임상·교육·연구의 시너지 창출에 기반을 둔 의료 시설 복합단지를 설립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KSP는 당초 다른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국립성인병원의 설립을 '20년 설립된 국립아동병원과 동일한 부지로 변경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어 국립의료 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KSP 종료 이후 우즈베크 타슈켄트 종합병원(성인병원)건립사업 EDCF 차관공여계약이 체결('21년 1월/1.2억 달러 규모)되었다. 본 사업의 긍정적 시사점은 EDCF 차관계약 전에 KSP를 통해 국립의료 복합단지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다른 EDCF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암센터 건립을 해당 부지 내에, 약학대학교, 의과대학교, 국립암센터 건립을 인접 부지 내에 추진 중이어서, 향후 임상·교육·연구 간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필리핀 2019/20년

#### KSP를 통한 필리핀 의료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 의료 지출 관리 방안 마련

2019/20년 필리핀 KSP는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장법(Universal Health Care Act, 2019) 추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확대, 증가하는 의료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 연구진들은 협력국 수요 맞춤형 정책자문이라는 KSP의 취지에 따라, 주제 선정 및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필리핀 보건부 및 건강보험청은 KSP 연구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으며 최종보고회 이후 실시한 종료평가 인터뷰에서 KSP를 통해 제안한 의약품 코딩 시스템 재점검 외에도, 중앙 의약품 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코딩 시스템에 연동된 전자 처방전으로의 확대에 관한 정책제언 이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0/21년 추적평가 결과 현재 필리핀 보건부는 웹기반의료청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 진행 중이며 2011년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구축된 의약품 코딩 시스템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청 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중이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제도화하고, 관련 부서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사업을 계기로 향후 한국과 필리핀의 의료 시스템, 제약 산업 부분의 민간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한-필리핀 간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시골과 도시에 환자가 처음 방문하는 외래진료소 혹은 의원 수준을 1차 의료로, 입원 병상을 갖추고 주정부 보건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곳을 2차 진료로, 이에 비해 질병 중증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가 요구되며 중앙 보건당국의 관할하에서 수행되는 곳을 3차 진료로 각각 나눌 수 있다(신현웅 외, 2019).



## 국제사회의 KSP평가

ODI  
Korea Innovation Week  
UNESCAP

### ODI “한국 KSP를 통한 지식공유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양상 선보여”

영국을 대표하는 국제개발·인도지원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는 2019년 Moving away from aid: the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를 통해 한국이 과거 수원국에서 2000년 수원국을 공식 졸업하기까지의 발전과정과 현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ODI는 한국이 공여국이 된 이후 지식공유 허브로 탈바꿈함으로써 기존의 유·무상 원조, 상업성 차관과 같은 자금지원이 아닌 지식공유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양상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상원조 중 기술원조의 비중이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63%를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이 KSP와 같은 기술원조를 통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KSP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사회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현 글로벌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의 장기화가 현실화함에 따라 국가 간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더욱 많은 나라가 ODA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지원을 넘어 KSP와 같은 국가 간 지식공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 전체보고서 보기 |



| 전체브로슈어 보기 |



## 세계은행 Korea Innovation Week에서 대표적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소개된 KSP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는 60년이 넘는 파트너십을 기념하고 기술혁신 부문 개발협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에서 한국 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혁신 및 기술분야 대표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 9개 정부기관, 4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였다. KSP는 한국의 개발컨설팅 유형 개발협력 사업 중 유일하게 본 행사에서 소개되었으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안상훈 소장은 본 행사의 패널 토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KSP를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얻은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KDI는 한국지식공유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과 공동으로 KSP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표적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 KSP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KSP 홍보부스에 방문한 세계은행 주요 국제기구 임직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KSP 사업의 절차, 접수 방법,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본 행사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처음 개최된 행사로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기술·혁신 부문 선진 공여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한국의 대표적 지식공유사업인 KSP 사업의 소개를 통해 한국의 발전경험의 실질적 공유방안 모색과 개발도상국들의 한국 발전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원조 효과성 제고와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



| 전체보고서 보기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sup>1)</sup>는 2018년 1월에 발간된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시아 공여국의 개발협력 보고서”에서 SDGs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방식으로 지식공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 OECD, ADB 등 국제사회의 지식공유사업 최신 동향을 언급하였다. UNESCAP은 우선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기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개발컨설팅 사업이 2012년 16개국 462억 규모에서 2013년 49개국 1,057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한국 지식공유의 대표사업인 KSP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수행기관이 개발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는 OECD가 회원국 간 지식공유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물을 제공하고 있고 ADB가 효과적인 지식중개인(effective knowledge broker)으로 자칭하며 지식의 수집과 대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UNESCAP은 특히 한국의 대표적 개발컨설팅 사업인 KSP가 자금이나 실물 지원 없이 상호학습(mutual learning)을 전제로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KSP의 공동연구와 상호학습을 통한 협력모델이 공여국과 파트너국 간 경제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역·산업분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UNESCAP은 KSP를 통한 한국의 삼각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KSP를 통해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신흥 공여국과 협력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동료검토(peer review) 혹은 공동평가(joint evaluation)를 진행한다던 조금 더 체계적인 자료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다.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